

박동실제(朴東實制) 유관순(柳寬順) 열사가(烈士歌)<sup>1)</sup>  
박동실 작(作) 장월중선(張月中仙) 전(傳) 정순임(鄭順任)<sup>2)</sup> 소리  
dolmin98@hanmail.net 김석민

[아니리]

때는 1904년<sup>3)</sup> 국운이 불행하야 조정은 편벽(偏僻)되고, 왜적이 침입하니 간신이 득세(得勢)로다. 보호조약(保護條約)<sup>4)</sup> 억지 하니<sup>5)</sup> 억울한 한일합병(韓日合併)<sup>6)</sup> 다투어 아니 분개(憤慨)하며 간신들의 매국적 부귀탐욕 일시(一時) 영화(榮華) 꿈을 꾸어 조국을 어찌 돌아보리. 반만년 우리 역사 일조일석(一朝一夕)에 무너지고 삼천만 분한 설움 삼월 일일 폭발되니 피 끓는 독립투사 도처마다 일어나 의를 세워 분투(奮鬪)할 제, 유관순(柳寬順)<sup>7)</sup>은 누구든고 십육 세 어린 처녀 근본부터 이를진대,

[진양조]

충남 천안 삼거리에 수양청청(垂楊靑靑)<sup>8)</sup> 능수버들은 우리나라에 유명커든 지기상합(志氣相合)<sup>9)</sup> 다시 부르려 구 목천(木川)<sup>10)</sup> 지령리에 평화로운 유 씨 가정 관순 처녀 태어나니 일대명전(一代名傳)<sup>11)</sup> 순국(殉國) 처녀(處女) 도움 없이 삼겼으랴.<sup>12)</sup> 계룡산수 창(壯)현<sup>13)</sup> 기운 지령리에 어려 있고 금강수 흐르난 물은 낙화암(落花巖)을 돌고 도니 삼천궁녀(三天宮女) 후인인지<sup>14)</sup> 귀인자태 아름답고, 월궁항아(月宮姮娥)<sup>15)</sup> 환생헌지<sup>16)</sup> 뚜렷한 그 얼굴은 의중지심(意中至心)<sup>17)</sup>이 굳고 굳어 미간(眉間)에가<sup>18)</sup> 어

---

1) 박동실(朴東實, 1897~1968)은 서편제 소리의 대가(大家)로 북한에서 공훈배우 칭호를 수여받기도 했다. ‘박동실제 유관순 열사가’는 그가 작창한 열사가 중 하나로, 유관순 열사에 관한 추모곡이다.

2) 정순임(1942~ )은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판소리 명가 제 1호로 지정한 ‘장판개(張判蓋, 1885~1937, 동편제 소리의 대가로 고종으로부터 참봉 벼슬을 제수 받았다)-장영찬(張泳瓚, 1930~1981)-장월중선(張月中仙, 1925~1998, 악가무의 명인이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9호 가야금 병창 보유자였다)-정순임’ 가계의 명창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이기도 하다.

3)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승기를 잡아 이후 국권피탈음모를 노골화한다. 물론, 1904년은 유관순(柳寬順) 열사가 태어난 해인 1902년이 와전(訛傳)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4) 보호조약 :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

5) 억지하니 : 억지 쓰니. 억지를 부리니.

6) 한일합방 : 경술국치(庚戌國恥).

7) 유관순(1902~1920)은 1919년 삼일 운동의 상징적인 독립 운동가이다.

8) 수양청청 : 수양(垂楊)버들이 매우 푸르다.

9) 지기상합 : 두 사람 사이의 의지와 기개가 서로 잘 맞다.

10) 목천군 : 유관순 열사의 고향으로 나중에 천안에 합쳐졌다. 열사는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현재는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났다.

11) 일대명전 : 한 시대에 이름을 전하다.

12) 삼겼으랴 : 생겨났으랴.

13) 계룡산수 창현 : 계룡산과 물의 크고 성대한이라는 뜻인 ‘계룡산수(鷄龍山水) 장(壯)현’이나 계룡산의 빼어나게 맑은이라는 뜻인 ‘계룡산 수청(秀淸)현’일 수 있다.

14) ‘후인인 듯’으로 부르기도 한다.

15) 월궁항아 : 달 속에 있는 선녀.

렸으니 일대영양(一代令嬢)<sup>19)</sup>이 분명쿠나.

[아니리]

그의 부친 유중권(柳重權)<sup>20)</sup> 씨는 성심이 청렴하사 부귀를 원치 않고<sup>21)</sup> 농업장생 글을 읽어 가는 세월을 소유(溯游)허니<sup>22)</sup> 정대(正大)한<sup>23)</sup> 예문은 군자의 덕행이요, 그의 아내 이 씨 부인<sup>24)</sup> 또한 만사가 민첩하사 예국예절<sup>25)</sup>이 능란허니 뉘 아니 정대[敬待]허리오.<sup>26)</sup> 자녀 간의 사남매를 금옥같이 길러 내어 부모의 유전인지 모두 다 현숙한지라 더욱이 관순이는,

[단중모리]

어려서부터 커날 적에 다른 아이들과 다른지라. 부모에게<sup>27)</sup> 효도하고 동기으게 화목허기, 예의염치 귀염좌립[起居坐立]<sup>28)</sup> 뉘 아니 칭찬하며, 유다른 그 인정은 사랑흡고<sup>29)</sup> 따뜻하야 사람마다 정복되고 정대한 그 마음은 신의가 분명쿠나. 때는 마침<sup>30)</sup> 봄이 되어 동지<sup>31)</sup>들과 어깨 끼고 꽃노래 나물 캐기 밤이면 술래잡기 가는 세월 어느덧이 곱게 곱게 자라날 제,

[아니리]

삼월 보름 좋은 때는 관순 처녀 생일<sup>32)</sup>이라 관순을 옆에 앉혀 좋은 음식을 먹일 제,

[창조]

---

16) ‘환생허니’로 부르기도 한다.

17) 의중지심 : 마음속의 더없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뜻인 듯하다.

18) 미간에가 : 눈썹 사이에.

19) 일대영양 : 한 시대에 널리 이름난 딸. ‘일세영양(一世令嬢)’으로 보기도 한다.

20) 유중권(1863~1919)은 일제에 맞선 독립 운동가이자 유관순 열사의 부친이다.

21) ‘성심이 청렴하사 일동일정(一動一靜)을 경솔히 아니 허고’로 아니리를 하기도 한다.

22) 소유허니 :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 내려가니. 마음 내키는 대로 슬슬 거닐며 돌아다닌다는 뜻의 ‘소요(逍遙)하다’이거나,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낸다는 뜻의 ‘소일(消日)하다’의 변형일 수도 있다.

23) 정대한 : 바르고 당당한.

24) 이 씨 부인 : 이소제(李少悌, 1875~1919)는 일제에 맞선 독립 운동가이자 유관순 열사의 모친이다.

25) 예국예절 : 애국예절(愛國禮節). 또는 여성들이 하던 길쌈질에 대한 재주와 기질을 뜻하는 ‘여공재질(女功才質)’의 변형일 수 있다.

26) 정대허리오 : ‘경대(敬待)허리오’의 변형. ‘경대하다’는 공경하여 대접하다.

27) 부모에게 : 부모에게.

28) 귀염좌립 : 기거좌립(起居坐立). 일어서고 앉고, 앉고 일어서는 행동거지.

29) 사랑흡고 : 사랑스럽고.

30) 마침 : 마침.

31) ‘동기(同氣)’나 ‘동무’로 보기도 한다.

32)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음력 11월 17일)에 태어났다.

바라보던 그 부친은 별안간 한숨을 길게 쉬며 나라 없는 장탄수심(長歎愁心)<sup>33)</sup> 두 눈에 눈물이 듣거니  
맺거니<sup>34)</sup> 흐르며

[아니리]

영특한 관순이는 부친의 뜻을 어찌 모르랴. 부친을 만단(萬端)<sup>35)</sup>으로 위로하고 그날부터 어린 가슴 애  
국정열 굳고 굳어 가슴속에 맺힌지라. 세월은 흘러가고 관순은 차차 장성하여 소학과를 마치고 서울 이  
화학당(梨花學堂) 고등과에 입학하니 이곳은 변화한지라. 세계 여론과 유언비어가 떠돌고 매국한 무리  
들은 왜놈의 세력의 힘을 믿고 의기가 양양하여지니 뜻이 있는 지사들은 일성장탄(一聲長歎)<sup>36)</sup>에 해외  
로 망명을 연속하고 이 강산 이 땅은 흉몽 중에 잠겼더라. 그때여<sup>37)</sup> 관순은 이화학당 후원에 홀로 앉  
아 자탄을 허는다,

[진양조]

“창창(蒼蒼)한<sup>38)</sup> 만리건곤(萬里乾坤)<sup>39)</sup> 호호망망(浩浩茫茫)<sup>40)</sup> 멀어 있고, 애달플사<sup>41)</sup> 이 강산에 청춘  
남녀를 부르건마는 힘이 없는 우리 민족 호소할 곳 바이없어 아무리 슬피 운들 주인 없는 이 강산에  
나라 없는 백성이라. 옛 성현이 이르기를 군신유의(君臣有義)<sup>42)</sup>의 중한 법은 오륜 중의 으뜸이요, 부자  
유친(父子有親)<sup>43)</sup> 천륜으로 앞을 서지 못했으니 이 모두가 대의분별 하심이라. 내가 비록 여잘 망정  
배달 혈통이 그 아닌가. 천창만검(千槍萬劍)<sup>44)</sup> 살기 중에 진을 둘러 싸우기는 장부같이 못하여도 내  
한 목숨이 끊어져서 국민의무를 지키는 것을 어찌 남녀가 다를쏘냐. 울울(鬱鬱)한<sup>45)</sup> 이내 심사 하느님  
께 맹세하고 처참난유[千斬萬戮]<sup>46)</sup> 될지라도 한번 먹은 이내 심사는 변할 리가 없으리라.”

[아니리]

이렇듯이<sup>47)</sup> 슬피우니 두 눈에 눈물만 흘러 앞섰을 다 적시고 구곡간장 타는 가슴 혼문수탐<sup>48)</sup> 되었다

33) 장탄수심 : 근심스런 마음으로 길게 탄식한다.

34) 듣거니 맺거니 : 떨어지다가 맺히거니.

35) 만단 : 여러 가지.

36) 일성장탄 : 하나의 긴 탄식소리.

37) 그때여 : 그때에.

38) 창창한 : 앞길이 멀어서 아득한. 또는, ‘갈 길을 잃어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아득하다’의 ‘창창(悵悵)하다’일 수 있다.

39) 만리건곤 : 멀고 먼 세상.

40) 호호망망 : 끝없이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

41) 애달플사 : 애달프구나.

42) 군신유의 :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는 의리에 있음을 이른다.

43) 부자유친 :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리는 친애에 있음을 이른다.

44) 천창만검 : 수많은 창과 칼.

45) 울울한 : 우울한. 마음이 상쾌하지 않고 매우 답답하다.

46) 처참난유 : 천참만륙(千斬萬戮). 수없이 목이 베여 죽임을 당하다.

47) 이렇듯이 : 이렇듯이.

라. 이화학당으로 돌아와 관순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배움이 없어 내 나라를 잃었으니 많은 연구와 공부에 열중하리라.

### [휘중중모리]

천성이 본래 활발해야 만사를 달통하고 뛰어난 그 총명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일을 깨우치고 한번 일러 허는 말은 일호차책[一毫差錯]<sup>49)</sup>이 없는지라. 이화학당 새 봄빛은 꽃다운 우리처녀 동방예의가 분명하고 언정이순(言正理順)<sup>50)</sup> 그의 덕<sup>51)</sup>은 여러 선생 칭찬이요, 자비한 그 인정<sup>52)</sup>은 동무들게<sup>53)</sup> 감탄이라. 휴가일에는 빨래하기 새이새이<sup>54)</sup> 자습이요, 기숙사 실내 안을 남의 손 댈 새 없이 거울같이 소제(掃除)허니,<sup>55)</sup> 일향처사(一向處事)<sup>56)</sup> 맘과 같이 정결하고 깨끗하다. 위생에 중한 책임 건강의 관념이요, 부녀부(婦女部)<sup>57)</sup> 정결함은 온 가정의 근본이라. 이 강산 이 땅 위에 부족한 우리 위생, 관순은 미리 알고 여유시간 소제함을 의무라고 생각한다.

### [아니리]

이렇듯 세월은 흘러 관순 나이 십육 세라. 그때여 고종(高宗) 황제<sup>58)</sup>께서는 조선조 제26대 왕으로서 선왕인 철종(哲宗)<sup>59)</sup>이 세자 없이 돌아가시자 조대비(趙大妃)<sup>60)</sup>가 옥새를 잡고 영조(英祖)의 현손(玄孫)<sup>61)</sup>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둘째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고종은 왕위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것이었다. 이때에 일본은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빼앗고 고종 황제를 덕수궁에 머무르게 하여 세월을 보내는데,<sup>62)</sup> 그것도 모자란 일본은 그 후 1910년에 한일합방(韓日合邦)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우리나라를 완전히 저희 손아귀에다가 넣고 고종 황제를 죽일 음모를 꾀하는 중,

---

48) 혼문수탐 : 만목수참(滿目愁慘, 눈에 띄는 모든 것이 시름겹고 참혹하다)이나 만면수참(滿面羞慚, 얼굴에 가득 찬 부끄러운 기색)의 변형인 듯하다. ‘홍면수참(紅面羞慚)’의 변형으로 보기도 한다.

49) 일호차책 : 일호차작(一毫差錯). 아주 작은 잘못이나 어긋남.

50) 언정이순 : 말이나 이치가 바르고 옳다. ‘언동(言動) 유순(柔順)’으로 보기도 한다.

51) 그의 덕 : ‘그 일동(一動)’의 변형인 듯하다. ‘그대들’이나 ‘그대 등’의 변형으로 보기도 한다.

52) 그 인정 : ‘그 일정(一靜)’의 변형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표현이 ‘그 일동’의 변형이라면 앞뒤의 표현이 ‘일동일정(一動一靜)’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53) 동무들게 : 동무들에게.

54) 새이새이 : 사이사이.

55) 소제허니 :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하니.

56) 일향처사 : 항상 하는 일.

57) 부녀부 :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의 부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듯하다.

58) 고종(1852~1919)은 조선의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이다.

59) 철종(1831~1863)은 조선의 제25대 왕이다.

60) 조대비 : 신정왕후(神貞王后, 1808~1890). 신정왕후는 익종(翼宗)의 왕후이자 제24대 헌종(憲宗)의 어머니이다.

61) 현손 : 증손자의 아들 또는 손자의 손자. 여기에서는 영조의 현손인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 1820~98)을 가리킨다.

62) 보내는디 : 보내는데.

[휘중중모리]

그때여 고종 황제께서는 오백 년 사직을 잃고 분함이 충천(衝天)하되,<sup>63)</sup> 강약을 이미 아신 고로 백성의 생명을 더욱 아껴 갖은 지옥[恥辱]<sup>64)</sup> 십 년간에 외로운 덕수궁(德壽宮)에 세월을 보내실 제 우리나라 간신들은 왜놈의 세력을 더욱 추세(趨勢)하여<sup>65)</sup> 공훈이 씩씩 올라가고 이완용(李完用)<sup>66)</sup>, 송병준(宋秉駿)<sup>67)</sup> 만고역적(萬古逆賊)<sup>68)</sup> 놈들 부귀가 더욱이 혁혁(奕奕)하여지되<sup>69)</sup> 심중에 있는 근심은 고종 황제 생존하심이라. 기회를 자주 엿보더니, 슬프다 고종 황제 우연히 득병하시니 이완용 정성이 있는 체하고 좌우를 물린 후에 탕약을 이완용 손에 거쳐 고종 황제 잡수시니 그 가운데는 무슨 음모와 비밀이 있는지라. 병세는 더욱 위중하여 눕고 일지<sup>70)</sup> 못하시더니 그대로 황제는 붕(崩)하신다.<sup>71)</sup> 삼천리 이 강산에 군부상사(君父喪事)<sup>72)</sup> 슬픈<sup>73)</sup> 설움 원한이 가득하고 팔도각골 면면촌촌 국상이 발표되니 곡반(哭班)<sup>74)</sup> 참배 소위 백관<sup>75)</sup> 예악예절(禮樂禮節)<sup>76)</sup>이 분분, 인산(因山)<sup>77)</sup> 위문을 허랴고 구름 같이 모아들 제 전조(前朝)<sup>78)</sup> 제신들은 대한문 너른 거리에 꺼적자리<sup>79)</sup>에 베풀어놓고 곡반 통곡하며 “원통하오 원통하오.” 애끓는 슬픈 울음<sup>80)</sup> 원한이 한데<sup>81)</sup> 뭉쳐 만호장안(萬戶長安)<sup>82)</sup>의 백성들은 분기가 만면, 혈기방장 청년 학도 주먹이 불끈불끈 어깨가 으씩으씩<sup>83)</sup> 그저 장안은 수군수군 “여보 이게 웬일이오. 고종 황제께선 암만 생각하여도 간신의 피해를 받으셨지<sup>84)</sup> 이놈들 죽여야지.” 가가호호(家家戶

63) 충천하되 : 분하거나 의로운 기개, 기세 따위가 북받쳐 오르다. ‘하늘에 퍼져 가득하되’의 뜻인 ‘창천(漲天)하되’ 또는 주야장천(晝夜長川)의 준말인 ‘장천(長川)’을 쓰는 ‘장천하되’로 볼 수도 있다.

64) 지옥 : ‘치욕(恥辱)’의 변형인 듯하다.

65) 추세하여 : 세력 있는 사람에게 붙좃아서 따라.

66) 이완용(1858~1926)은 일제 강점기 친일반민족 행위자이다. 을사오적(乙巳五賊)이자 정미칠적(丁未七賊)이다.

67) 송병준(1858~1925)은 일제 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정미칠적이다.

68) 만고역적 :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역적.

69) 혁혁하여지되 : 매우 크고 아름다워 성(盛)하여지되.

70) 일지 : 일어나지.

71) 붕하신다 : 붕어(崩御)하신다. 임금께서 세상을 떠나신다.

72) 군부상사 : 아버지와 같은 임금이 붕어하신 일.

73) 슬픈 : ‘높은’으로 보기도 한다.

74) 곡반 : 국상(國喪) 때 곡을 하던 벼슬아치의 반열.

75) 참배 소위 백관 : 참배하는 이른바 백관. ‘참배소(參拜所)의 백관’을 쓰기도 한다.

76) 예악예절 : 예법과 음악, 예절.

77) 인산 : 국장(國葬).

78) 전조 : 이전의 조정.

79) 꺼적자리 : 거적자리.

80) 애끓는 슬픈 울음 : ‘애끓어 슬피 울어’ 등으로 보기도 한다.

81) 한데 : 한곳이나 한군데. ‘함께’로 부르기도 한다.

82) 만호장안 : 일만 가구가 사는 서울.

83) 으씩으씩 : 으쓱으쓱.

84) 받으셨지 : ‘당하셨지’나 ‘입으셨지’로 보기도 한다.

戶) 거리거리 의견이 분분 일어날 제 각처 교실 내외선 무슨 비밀이 갔다 왔다<sup>85)</sup> 수선수선 무거운 침묵 속에 민족자결(民族自決)<sup>86)</sup>을 응하여, 독립운동 시위 행렬 전국적으로 일어날 제 손병희 씨 선두 되고 여러 수반 의인들은 차서(次序)<sup>87)</sup>를 분별하여 태극기 선언서(宣言書)를<sup>88)</sup> 만단같이 준비한 후 삼월 일일 열두 시<sup>89)</sup>에 거사허자는 약속이라.

[아니리]

때는 2월 28일 민족대표 서른세 명이 손병희 씨 댁에 모두 모여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의논하고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에 서명을 한 연후에 미국 대통령과 파리강화<sup>90)</sup>의 각국 대표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보내고 대의 날을 기다릴 제,

[자진머리]

때는 벌써 이월 그믐 밤이 적적 깊었나니 각처 수반 의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명일 거사 준비할 제, 어느새 먼동이 희번 원산이 쫙긋쫙긋<sup>91)</sup> 동녘에 해가 뜨니 삼월 일일이 오날<sup>92)</sup>이라. 파고다 공원 앞으로서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약속시간 기다릴 제 벌써<sup>93)</sup> 열두 시 정각을 땡땡. 선언이 끝이 나자 태극기 번뜩 북악산이 우루루루루 “대한독립만세 만세!”<sup>94)</sup> 장안이 으근으근으근<sup>95)</sup> 남산이 뒤끓어 삼각산이 떠나갈 듯 의분기창(義憤氣脹)<sup>96)</sup> 청년학도 솟을 듯이 나아갈 제 어디서 총소리 광 칼날이 번뜩,<sup>97)</sup> 쓰러지는 우리 동포 죽어가면서도 독립만세. 산지사방(散地四方)<sup>98)</sup> 만세소리 연속하여 일어나고 포악 무도 일본헌병 거리거리 길을 막고 함부로 난타하야 총으로 쏘고 칼로 쳐서 선(先)머리<sup>99)</sup> 툅툅 쓰러져도 그저 물밀듯이<sup>100)</sup> 피 끓는 청년들은 주먹 쥐고 우루루루루, 왜놈들 냅다질 꺼꾸러 쳐 좌우에 총소리 광 광. 슬프구나 어허어 우리나라 당당헌 의무련마는 무도한 왜놈들은 함부로 총을 쏘니 주검이 여기저기 수라장이 되었구나.

---

85) ‘왔다 갔다’로 부르기도 한다.

86) 민족자결 :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1856~1924)의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

87) 차서 : 차례의 순서

88) 선언서를 : 삼일독립선언서(三一獨立宣言書)를. ‘서로서로’를 쓰기도 한다.

89) 이 부분이 열두 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삼일 운동은 오후 두 시였다.

90) 파리강화 : 파리강화회의(講和會議). 제1차 세계대전을 청산하는 국제적 협상을 개시한 회의(1919~20).

91) 쫙긋쫙긋 : 입이나 귀 따위를 꼳꼳하고 크게 세우거나 뼈죽하게 내미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92) 오날 : 오늘. ‘오날날’은 ‘오늘날’의 전라 방언.

93) 벌써 : ‘어느새’로 보기도 한다.

94) 만세 : ‘만세 만세’로 부르기도 한다.

95) 으근으근으근 : 무너질 듯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을 뜻하는 듯하다.

96) 의분기창 : 의로운 분노가 가슴이 터질 듯이 가득 차다. 참고로 기창은 인간의 감정이 맺혀 뱃속에 가스가 가득차서 배가 불룩해지며, 몸이 붓고 팔다리가 여위는 병이다.

97) 총소리 광 칼날이 번뜩 : ‘총소리 광 과광’으로 부르기도 한다.

98) 산지사방 : 사방으로 흩어지다.

99) 선머리 : 행렬의 앞부분.

100) ‘그저 물밀듯이’를 빼고 부르기도 한다.

[아니리]

이렇듯 수라장 속에 몇몇 학생들이 빠져나와 이화학당으로 돌아오니 그때여 교장 프레이(Frey)<sup>101)</sup> 미국 선생이 창백한 얼굴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학생들을 반기하며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 준 것이 무엇보다 하느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은 아주 장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일본은 언젠가는 큰 벌을 받을 것이오.” 한참 이럴 쯤에 일본 헌병들이 들이닥쳐 독립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찾아내라고 독촉을 하는 한편 총독부에서는 각 학교 임시 휴학의 명령을 내렸었다. 관순이도 하릴없이 저의 고향으로 내려가는디,<sup>102)</sup>

[중모리]

그날 즉시 길을 떠나 구 목천 지령리 지체 없이 내려와서 부모님께 아뢴 후에 근동 사람 모두 모아 선언서를 발표한 후 우리는 때가 왔으니 앞을 서서 나갑시다. 모인 중 조인원(趙仁元)<sup>103)</sup>이 주먹을 들고 일어나고 관순은 각처 연락 곤한 줄도 모르고 천안읍 김구응(金球應)<sup>104)</sup>을 찾으니 이 또한 동지라. 여러 학교를 충동(衝動)하고<sup>105)</sup> 청주 진천 유림대표 모두 찾아 약속한 후 면면촌촌 가가호호 방문하여 부인들을 충동하느라 주야배도(晝夜倍道)<sup>106)</sup>허는구나.

[아니리]

이렇듯 활동혈 제 이러한 결과로 동지들을 얻어 음력 삼월 일일로 정하고 관순은 그날 밤 매봉산에 올라 봉화를 놓아 군호를 올린 후에 홀연히 앉아 자탄을 허는디,

[진양조]

“적적히 홀로 앉아 오늘 일을 생각허니 무인공산(無人空山)<sup>107)</sup>에 밤이 이미 깊었나니 밤새소리는 부웅 부웅 바람은 나뭇가지를 싹 스쳐간다. 묻나니 청산이여 고국흥망을 뉘랴 알리로다. 반만년 우리 역사 일조일석에 무너지고 갓은 지옥[恥辱] 십 년간에 호소할 곳이 바이 없이 명일 대의를 잡아 일어나니 천지신명은 살피소서.” 이리 앉아 자탄을 허되 무심한 청산은 아무 대답이 없고 서천(西天)하늘<sup>108)</sup>에 별빛만 기울어졌네. 아이고 원통하여라 구곡간장 장탄으로 밤이 깊어 가는 줄을 모르는구나.

[아니리]

---

101) 프레이 : 룰루 프라이(Lulu E. Frey, 1868~1921). 이화학당 제4대 당장(堂長).

102) ‘관순이 분이 나서 충남을 선동코저 저의 고향으로 내려가는다’로 아니리를 하기도 한다.

103) 조인원(1875~1950)은 일제에 맞선 독립 운동가이다.

104) 김구응(1887~?)은 일제에 맞선 독립 운동가이다.

105) 충동하고 : 어떤 일을 하도록 남을 부추기거나 심하게 마음을 흔들여 놓고.

106) 주야배도 : 밤낮으로 길을 걸어, 다른 사람들이 이틀에 갈 길을 하루에 간다는 뜻이다. 참고로, ‘배도(倍道)’는 ‘배도겸행(倍道兼行)’의 준말인데 배도겸행은 보통 사람이 이틀에 갈 길을 하루에 걷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107) 무인공산 : 사람이 없는 빈 산.

108) 서천하늘 : 서쪽하늘.

이렇듯이 자탄을 혈 제 먼촌에 개 짚는 소리 들릴 적에

[자진머리]

날이 차차 밝아지니 음력 삼월 첫날이라 아우내장 네거리에 십육 세 어린처녀가 무엇을 옆에다 끼고  
왔다갔다 수천 명 군중들은 연속하여 모여들고, 한편 지령리<sup>109)</sup>에서 태극기 서로서로<sup>110)</sup> 조용조용히  
나누어 줄 제, 어느새 오후 한 시라. 유관순<sup>111)</sup>이 높이 서서 선언서를 낭독한다. 반만년 우리역사 왜놈  
들게 무고히 뺏긴 십 년에 민족자결을 응하여 독립운동 시위행렬 허자는 선언이 끝이 나자 태극기 높  
이 들어 “대한독립만세! 만세! 만세!” 천지가 뒤덮는 듯 강산이 뒤끓어 매봉산이 떠나갈 듯 수천 명 군  
중들은 시위행렬 전진혈 제 어디서 총소리 황 김구응 꺼꾸러지니 관중은 더욱이 열이 북받쳐 “이놈아  
이놈아 개 같은 놈들아 총은 너희가 왜 쏘느냐 저놈들 죽여라.” 우우우 달려들어 파견소 문짝을 후닥닥  
지끈 와지끈 때려 부수니 왜놈이 겁내어 담 너머로 도망가고 어디서 자동차 소리가 우루루루루루루루  
천안 헌병본부에서 응원대 쫓아 들오며<sup>112)</sup> 총소리 황 황<sup>113)</sup> 유중권 내외가 꺼꾸러지고 조인원이 쓰러  
지니 관순이 눈이 캄캄 우루루루루루루루 달려들다 칼날이 번뜩 또 쓰러지니 관순이 기가 막혀,

[자진중중모리]

"허허, 이것이 웬일이냐 야 이 몯쓸 왜놈들아 우리 민족 빈손으로 독립허자 허였거늘 무삼<sup>114)</sup> 일로 총  
을 쏘아 이 모양이 웬일이냐. 섰다 꺼꾸러져 때그르르르 궁굴어<sup>115)</sup> 보고 가슴을 광광 머리도 지끈지끈  
부모님 시체를 안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천추 원한 품으시고 영결종천(永訣終天)<sup>116)</sup> 하셨으니, 장엄  
한 이 죽음은 국민의무가 당연허나 철천지 맺힌 한을 어느 때나 풀으리까. 예끼 천하 몯쓸 놈들 금수만  
도 못하구나, 포악무도(暴惡無道)<sup>117)</sup> 기장구(豈長久)허리야.<sup>118)</sup> 나도 마저 죽여라.” 우루루루루

[아니리]

달려들다 헌병 발길에 건똥 채여<sup>119)</sup> 꺼꾸러졌겠다. 관순이 분한 마음에 부모님 시체를 안고 죽기로 작  
정허니 그 때 마침 우리 동지 하나가 관순을 피신시켜 놓으니, 관순이 거기서 빠져나와 저의 집으로 돌  
아와 관복<sup>120)</sup>과 관석<sup>121)</sup> 두 동생을 만난 후에 헌병들에게 발각되어 여러 동지들과 하릴없이 끌려가는

109) 지령리 : ‘질(길) 어귀’의 변형. 일제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죄목을 옆두에 둔 것이다. 김교선, 한동규, 이백  
하, 이순구 등은 “시장의 출입구에 지켜 서서 …… 조선 독립 만세를 함께 부르도록 권유”했다고 한다.

110) 서로서로 : ‘선언서(宣言書)’의 변형. 삼일독립선언서(三一獨立宣言書)를.

111) 역사적 사실로는, 조인원(趙仁元)이다.

112) 들오며 : 들어오며. ‘들오다’는 ‘들어오다’의 준말.

113) 총소리 황 황 : ‘좌우에 총소리 황 황’으로 부르기도 한다.

114) 무삼 : 무슨.

115) 궁굴어 : 텅굴어.

116) 영결종천 : 죽어서 영원히 이별하다.

117) 포악무도 : 법도 도리도 없이 포악하다는 뜻으로, 사납고 악착하기가 이를 데 없음을 이르는 말.

118) 기장구허리야 : 어찌 장구하랴. 어찌 매우 길고 오래랴. ‘리야’는 ‘랴’의 옛말.

119) 건똥 채여 : 갑작스럽게 채여. ‘걸어 채여’로 아니리를 하기도 한다.

다.

[늦은중모리]

붙들리어 가는구나, 끌리는 포승줄은 앞뒤로 얽어매고 손에는 수갑이라. 흐트러진 머리채는 두 귀 밑에 늘어지고 피와 같이 흐르는 눈물 옷깃에 모두 다 사무친다. 아우내 장터 사람들은 모두 나와 울음을 울고 세상을 모르고 누워있는 여러 동지 부모양친은 고요히 잠이 들어 아무런 줄을 모르는구나. 관순이 망극하여,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불효여식 관순이는 사세부득 끌려가오니 죄를 용서하옵소서.” 애끊어 슬피 우니 흘린 눈물 비가 되고 한숨은 모아서 청풍(淸風)<sup>122</sup>이라. 청산도 느끼난 듯 관순은 오열하여 휘늘어져 곱든 꽃은 이물어져 빛을 잃고 뜻밖의 두견이는 피를 내어 슬피 울어 야월공산(夜月空山)<sup>123</sup> 얻다 두고 진정제송단장성(盡情啼送斷腸聲)<sup>124</sup> 축국한<sup>125</sup>이 깊었으니, 니 아무리 미물이나 사정은 날과 같이 천추 원한 운다마는 사세가 부득이 되니 수원수구<sup>126</sup>를 어이 허리. 이렇듯이 울음을 울 제 표독한 일본헌병 성화같이 재촉한다. 백여 명 동지들은 칼 맞아 팔 못 쓰는 사람, 총을 맞고 다리 절어 전동전동거리고<sup>127</sup> 끌려간다. 의분은 창천(蒼天)<sup>128</sup>에 달아 있고 슬픔은 산하에 찼다. 어느새 일모도궁(日暮途窮)<sup>129</sup>하여 박모(薄暮)<sup>130</sup>에 들어설 제 천안읍을 당도터니 이곳은 헌병본부이니라. 위엄이 늠름 살기가 일어나고 의기가 만면하여 호령이 추상같은지라, 관순은 노려보며 태연히 들어간다.

[아니리]

그때여 헌병 대장이 관순의 목에 총을 딱 대고, “너 이년, 조그만헌 년으로 이런 범란(汎濫)<sup>131</sup>한 짓을 할 리가 없고 반드시 네 뒤에는 지도자가 있을 터이니, 지도자가 누구인지 바른대로 말하여라. 그러면은 니 목숨만은 살려주마.”

[단중모리]

“이놈아 니 나를 어찌 보느냐 내 나이 십육 세라 오천 년 배달민족 우리 한국 처녀여든 죽는 것을 두려워야 개와 같은 네놈 앞에 살기를 구할쏘냐. 총으로 쏘든 칼로 치든지 양단간에 하려무나. 나 죽은 혼이라도 너희 나라 혼비중천(魂飛中天)<sup>132</sup> 떠다니며 너희들을 몰살시켜 원한을 풀어 보리라. 아나 이놈

120) 유관복(柳寬福)은 유관순 열사의 동생이다. 이름은 인석(仁錫)이고 관복(寬福)은 자이다.

121) 유관석(柳寬錫)은 유관순 열사의 막냇동생이다.

122) 청풍 : 맑은 바람.

123) 야월공산 : 달 밝은 밤 사람이 없는 산속.

124) 진정제송단장성 : 진정으로 애끊는 울음소리로 울며 보낸다.

125) 축국한 : 축(蜀)나라 망제(望帝)의 한. 중국 전국 시대 축 왕 망제의 죽은 녀이 두견이 되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126) 수원수구 :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다.

127) 전동전동거리고 : 절뚝절뚝거리고.

128) 창천 : 푸른 하늘.

129) 일모도궁 :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막혀 있다.

130) 박모 : 해가 진 뒤 컴컴해지기 전까지 살짝 어둠이 깔린 상태.

131) 범란한 : 범람(汎濫)한. 제 분수에 넘친.

아 나를 썩 죽여라.” 앞니를 와드득 와드득 두 주먹 벌벌 떨며 “선도자는 내로다. 무도한 왜놈들이 어서 급히 죽어라.”

[아니리]

이렇듯 포악을 해노니 헌병대장 어이없어 관순을 다시 결박하여<sup>133)</sup> 공주 검사국으로 넘겼었다. 그때여 관옥(寬玉)<sup>134)</sup>이도 시위행렬허다 붙들려 들어와 그곳에 신문(訊問)을 받으러 왔다 형제 만나게 되었구나.

[창조]

관순이 기가 막혀,<sup>135)</sup>

[중모리]

섰다 절걱 버썩 주삐더니<sup>136)</sup> “아이고 원통하여라 원통하네 나라 없는 외로운 몸이 부모까지 이별허고 형제는 각기 감금되니 어린 동생들을 어이하리. 아이고 이 일을 어찌를 헐그나.” 복통 단장성으로 울음 우니 그때여 관옥이는 아무런 줄을 모르다, “이 애 관순아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고 오라버니 아우내 장터 행렬 시에 양친이 다 돌아가셨소.” “무엇 어째.” 관옥이 정신 상망(喪亡)<sup>137)</sup>허여 하늘이 빙빙 돌고 땅이 꺼지난 듯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못 허고, 두 눈에 눈물이 듣거니 맺거니<sup>138)</sup> 그저 퍼버리고 울음을 운다.

[아니리]

이렇듯 두 형제 붙들고 울음 우니 악독한 일본 헌병들이 달려들어 두 형제를 띠어 각각 감옥으로 끌고 가는디,

[중중모리]

그때여 관순이는 검사국에 신문받고 백여 명 동지들과 옥으로 내려갈 제 악독한 일본헌병 총칼을 매고 새이새이 끼어 서 감금이 엄숙하여 공주교를 얼푯<sup>139)</sup> 지나 좌우를 둘러보니 남녀노소 수십 명이 거리

---

132) 혼비중천 : 높은 하늘로 영혼이 날아간다.

133) 이렇듯 포악을 해노니 헌병대장 어이없어 관순을 다시 결박하여 : ‘헌병대장이 벌벌벌벌벌벌벌 떨면서’로 아니리를 하기도 한다.

134) 유관옥(柳寬玉, 1899~1968)은 일제에 맞선 독립 운동가이자 유관순 열사의 오빠이다. 이름은 우석(愚錫)이다.

135) ‘관순이 눈이 캄캄하여’를 쓰기도 한다.

136) 주삐더니 : 주저앉더니.

137) 상망 : 잃어버리다.

138) ‘두 눈에 눈물이 듣거니 맺거니’를 빼고 부르기도 한다.

139) 얼푯 : ‘얼른’의 경상 방언.

거리 늘어서서 혀도 차고 눈물 흘러 장하다고 탄식한다. 그곳을 지나 감옥 앞을 당도하니 간수는 문을 열어 죄수를 받고 서류를 모아 명록 대신 번호를 써서 앞섰다가 붙여 각기 분방을 시킬 제 그때여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각처에 벌어져 시위 행렬이 연속이라. 포악무도 일본 헌병 총으로 쏘고 칼로 쳐서 함부로 얹어 묶어 끌어갈 제 분함 하늘에가 사무치고 장엄한 그 죽엄<sup>140)</sup>은 도처마다 물을 들여 흘린 피로 물들으니 아름다운 애국정열 장하고도 씩씩하다.

[아니리]

이때여 우리 동포들 각처에 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붙들리어 들어와 모진 고문과 악형으로 죽어가는 동지들이 수도 없이 많은지라. 관순도 또한 공주 검사국에 불복하고 경성 복심법원에 상소(上訴)<sup>141)</sup>를 허였는디, 이리하여 경성 복심법원으로 옮겨지니 관순이는 서대문 미결 감옥에 처하는지라. 그 후 며칠이 지난 후에 관순이 재판 날이 돌아왔는디,

[진양조]

위엄이 늙름하다. 예복(禮服)을 입은 일본 검판사는 층계 위에 높이 앉았으니 교만(驕慢)과 살기(殺氣)가 만면(滿面)이라. 좌우편의 변호사는 우리 동포 죄를 감소시키려고 법률 책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니 이는 선인이 분명하고 모아 앉은 방청객은 겹겹이 모두 늘어앉아 체형(體刑)<sup>142)</sup> 언도(言渡)를 볼 양으로 담담허니 앉었구나.

[아니리]

그때여 검사가 의기가 양양하게 관순을 쏘아 보며, “네 이년 너는 죄인의 몸으로서 감방에서 소란을 피웠으니 그 또한 큰 죄이려니와 대 일본국 천황 폐하를 무시한 죄 더더욱 큰 죄로다.” 관순이 듣고 문답허되, “너희들에게는 천황 폐하로되 나에게는 대철천지 원수로다.” “저런 저런 저런 발칙한 년. 네 이년 네 죄를 생각하면 당장에 이 자리에서 처형할 일로되 너 아직 어린 고로 징역 칠 년을 구형<sup>143)</sup>하노라.”

[엇머리]

관순이 분기 충천하여, “이놈 무엇이 어째여, 우리 민족 빈손으로 독립허자 허였거늘 무삼 일로 총살허고 감금수옥헌단 말이 네 입에서 나오느냐.” 앉았던 의자 번쩍 들어 우에<sup>144)</sup>를 보고 냅다 치니 의분은 충천 범정은 뒤죽박죽이 되야 검판사 뉘을 잃고 좌우 간수들도 어찌할 줄 모를 적에 모아 앉은 방청객은 의분이 복받치어서 주먹만 벌벌 떨고 무슨 말이 나올 듯 입만 딸싹딸싹.

---

140) 죽엄 : 죽음.

141) 상소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142) 체형 : 징역이나 금고 따위,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

143) 결국, 경성 복심법원은 1919년 6월 30일에 유관순 열사에게 3년 형을 선고한다. 참고로 1심에서 공주 지방법원은 1919년 5월 9일 유관순 열사에게 5년 형을 선고했다.

144) 우에 : 위에.

[아니리]

하마터라면 여기서도 큰일 날 뻔하였던가 보더라. 이리하여 관순을 다시 결박하여 감옥으로 끌고 가는다.

[창조]

그때여 관순이 적막 옥방 홀로 앉아 옥창 밖을 내다보니 만리장공(萬里長空)<sup>145</sup>에 구름만 담담하고 흐트러진 나라 근심과 원통하게 돌아가신 부모양친과 어린 동생들을 생각하니 추연(惻然)<sup>146</sup>히 눈물을 흘리며,

[진양조]

“내 죄가 무삼 죄고 부모불효 하였느냐? 살인강도한 일 없이 음양작죄(陰陽作罪)<sup>147</sup> 아니어든<sup>148</sup> 감금수옥(監禁囚獄)이 웬일이냐. 죄가 있고 이럴진대 아무 여한이 없으련마는 나라 없는 민족이 제 나라 찾자는 게 그게 무슨 죄란 말이냐. 당당한 의무련마는 세사가 모두 이렇던가. 아이고 원통하여라 이제 내가 죽어져서 외로운 혼백이 만리장공에 흩어지고 만수청산에 일본토<sup>149</sup>가 되면 만사를 모두 잊으련마는 무엇을 바래고 내 여태 살아 있어 이 모양을 당하는구나. 옛날 고려 포은 선생은 나라 위하여 죽어 있고 단종 때 성삼문 씨 독야청청 절(節)을 지켜 충직지(忠直旨)<sup>150</sup> 임명허니<sup>151</sup> 군신유의 중한지고. 진주 논개 평양 계월 나라에 몸을 바쳐 대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또한 사람이라 고인만은 못해여도 인신지본의(人臣之本義)<sup>152</sup>를 왜 모르랴. 이제 내가 죽는 것은 싫잖으나<sup>153</sup> 사후 영결허신 부모님 초상장례를 뉘 했으며 철모르는 어린 동생들은 뉘 집에서 자라날꼬. 분하고 내가 원통한 사정을 어느 누게다가 하소를 허리.”

[아니리]

이렇듯 슬피 울다 의분이 복받치어 옥창문(獄窓門)<sup>154</sup>을 두다리며<sup>155</sup> 독립 만세를 삼창으로 부르난디,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이렇듯 냅다 질러 놓으니, 그때여 우리나라 동지들이 수도 없이 붙들려 들어와 각각 감방에 감금되었는지라. 관순이 외치는 소리에 여기에서 그 소리를 듣고 같이 합창으로 불러노니 감옥 안이 발끈 뒤집혔던가 보더라. 황급한 간수들은 관순을 잡아 끌어내어 다시 신문을 하는

145) 만리장공 : 멀고먼 하늘.

146) 추연히 : 처량하고 슬프게.

147) 음양작죄 : 남녀 간의 성에 관한 문제로 죄를 짓는다.

148) 아니어든 : ‘아니거든’의 옛말.

149) 일본토 : 일부토(一抔土). 한 줌의 흙이라는 뜻으로, ‘무덤’을 이르는 말.

150) 충직지 : ‘충직(忠直)한 승지(承旨)’라는 뜻인 듯하다.

151) 임명하니 : ‘임명허여’로 부르기도 한다.

152) 인신지본의 : 신하에게 있어 근본이 되는 뜻과 가치. 인신지분야(人臣之分也, 신하의 도리라)의 변형인 듯.

153) 싫잖으나 : 싫지 않으나.

154) 옥창문 : 옥(獄)의 창문.

155) 두다리며 : 두드리며.

[중모리]

좌우에 일본 간수들은<sup>157)</sup> 관순을 잡아내고 전옥(典獄) 이하 간수장들은 일제히 늘어앉아 추상같이 호령을 한다. “어 이년 너는 일국의 백성이 되어 국법을 무시하느냐?” “미친 도적놈들 말 들어라. 당초에 너희 놈들이 보호조약을 억지 하여 위협적 침략정책 우리나라를 짓밟아 뺏고도 무삼 면목에 낫을 들어 그런 말을 허느냐?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너희 법을 부인하노라.” “허허 그년 당돌허다. 니가 어찌 당초 근본을 알겠느냐. 내 자세히 일러주지.” “무엇, 근본? 흥 어디 말해봐라.” “너희 나라에 당파가 있어 보전할 길이 없는 고로 우리 병력을 다하여서 일청(日淸) 일로(日露) 전쟁함이 그제 모두 너희를 위함이라.” “오 그 일로 말할진데 너희 놈들이 간흉(奸凶)<sup>158)</sup>하여 우리나라를 도적허자 근본이니 그건 더욱 흉측허지.” “무엇 어째. 이년 또 들어봐라. 너희 군신이 합배(合拜)<sup>159)</sup>하여 보호를 부탁하였고 합병(合併)<sup>160)</sup>을 하자는 것도 그제 모두 너희를 위함이라.” “어허 어찌여 뻘뻘허구나 왜놈들아. 그것은 너희 놈들이 우리나라 역적들과 공모하여 너희들 맘대로 허였으니 우리 의사 안중근(安重根) 씨 이등박문(伊藤博文)<sup>161)</sup>을 죽인 후로 여순(旅順) 감옥<sup>162)</sup>에서 사(死)허시고<sup>163)</sup> 이준(李儁) 선생은 배를 갈라 만국회(萬國會)<sup>164)</sup>에다 피를 뿌려 세계만국 경탄이요, 우리 동포 흘린 피는 도처마다 물을 들어 천추 원한 맺힌 한을 너희도 응당 알 것이다. 쥐와 같이 간사헌 놈들 포악무도 일삼으니 아니 망허고는 안되지야.” “에잇 그년 천하에 독한 년이로다. 당장에 말 못 허게 치려무나.” 때리고 달고 치고 물을 퍼 씌어내도 꼼짝달싹 않고 더욱 정신이 썩썩하여지며 “얼다 이 흉폭한 왜놈들아 너희가 나를 짹짹 찢어 육장(肉醬)<sup>165)</sup>을 만들든지 동동이<sup>166)</sup> 가르든지 너희들 맘대로 하려니와 나의 굳은 마음은 못 뺏지야. 옛글에 이르기를 적국지수(敵國之首)는 아국지수(我國之讐)요 아국지수(我國之首)는 적국지수(敵國之讐)라<sup>167)</sup>. 너희 놈들이 나를 죽이는 것은 흉폭한 너희 목적이요, 나는 이 자리 죽난 건 당당한 나의 의무라 헐 것이니 당장에 목숨을 끊으려무나.” “에잇 그년 천하에 독한 년이로다.” 화덕에다 불을 피워 쇠끝이에다 불을 붉게 달아서<sup>168)</sup> 살을 푹푹 찌르니 기름이 끓고 살이 타져도 꼼짝달싹 않고 여전히 포악을 허는구나. “에잇 그년 단칼에 쳐 죽여라.” 칼로 찌르고, 살을 점점 헤쳐노니, 아깝구나 우리 관순 악형을 못 이기어 죽어가면서도 포악이라. 입만 딸싹딸싹 천추 원한 품에 품고 아주 깜박 명진(命盡)허

156) ‘관순을 다시 결박하여 검사실로 끌고 가는다’로 아니리를 하기도 한다. 참고로, 유관순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고문은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의 삼일 운동 1주년 옥중 만세시위에 대한 탄압으로 본다.

157) 간수들은 : ‘검판사는’으로 부르기도 한다.

158) 간흉하여 : 간특하고 흉악하여.

159) 합배하여 : ‘함께 배알(拜謁)하여’라는 뜻인 듯하다.

160) 합병 : 1910년 경술국치.

161) 이등박문 : 이토 히로부미.

162) 여순 감옥 : 뤼순형무소.

163) 사허시고 : 돌아가시고.

164) 만국회 :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

165) 육장 : 고기를 넣고 졸인 고추장, 간장, 된장 등을 일컫는 말이다.

166) 동동이 : 여러 개의 묶음으로.

167) 적국지수는 아국지수요 아국지수는 적국지수라 : 적국의 우두머리는 우리나라의 원수(怨讐)요, 우리나라의 우두머리는 적국의 원수라.

168) 쇠끝이에다 불을 붉게 달아서 : ‘쇠꼬치에다 불을 붉게 달궈’로 부르기도 한다.

니<sup>169</sup>) 피는 흘러 땅에 그득하고 피육은 점점 흠어졌네. 장하구나 순국처녀 몸은 죽탕<sup>170</sup>)이 되었으되 의혈(義血)<sup>171</sup>)만은 살아 있어 깨끗한 그 영혼<sup>172</sup>)은 만리장공에 높이 뒀구나. 창천도 느끼난 듯 일광도 빛이 없고 날아가는 새짐생<sup>173</sup>)도 허공중천 떠돌고 산천초목(山川草木)이 낮을 일고 고요하니 서서 있다. 여보시오 여러 동포 이팔청춘 어린 처녀 나라에 몸을 바쳐 순국열사 허였던 말 나는 고금천지 처음이요, 반만년 역사 중에 아름다운 이 이름<sup>174</sup>)은 명전천추(名傳千秋)<sup>175</sup>) 그 아닌가. 어화 세상 사람들아 만세 의혼께 축배허세.

[중중모리]

어화 청춘 소년들아<sup>176</sup>) 관순 씨의 본을 받아 나라 위하여 일합시다. 인생은 최귀(最貴)하요,<sup>177</sup>) 만물의 영장이니 대의지신 굳게 뭉쳐 각기 의무를 지킬지라. 예로부터 충의절은 이 나라의 기둥이요 간인(奸人)<sup>178</sup>) 중의 탐욕자는 만세추명(萬歲醜名)<sup>179</sup>)이 한심쿠나. 부귀는 지내가고 공명은 부운(浮雲)이라 일시(一時) 허영(虛榮) 부린 지신[侈心]<sup>180</sup>) 추호도 두지 말고 정의를 바로 하여 이 강산 이 땅 위에 만세영화(萬歲榮華)<sup>181</sup>) 빛내기는 여러 청춘들의 책임이라.

---

169) 명진허니 : 목숨이 다하니.

170) 죽탕 : 맞거나 짓밟혀 몰골이 상한 상태.

171) 의혈 : 정의를 위하여 흘린 피. ‘의열(義烈)’로 부르기도 한다.

172) 영혼 : ‘죽엄(죽음)’으로 부르기도 한다.

173) 새짐생 : 새짐승.

174) 이름 : ‘죽엄’으로 부르기도 한다.

175) 명전천추 : 오랜 세월 동안 이름이 전해지다.

176) ‘어화 세상 사람들아’로 부르기도 한다.

177) 최귀하요 : 가장 귀하다는 뜻인 듯하다.

178) 간인 : 간사한 사람.

179) 만세추명 :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는 더러운 이름.

180) 지신[侈心] : ‘치심(侈心, 사치를 좋아하는 마음)’의 변형인 듯하다. ‘치심(癡心, 어리석은 마음)’의 변형일 수도 있다.

181) 만세영화 :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는 영화로움.